

## 반도체 폐 Si 슬러지를 이용한 질화규소세라믹의 제조

이병택 · 유정호 · 김해두\*

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한국기계연구원 요업재료 그룹

### Fabrication of Silicon Nitride Ceramics Using Semiconductor-Waste-Si Sludge

Byong-Taek Lee, Jung-Ho Yoo, and Hai-Doo Kim\*

Division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Ceramic Materials Group,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1999년 7월 14일 받음, 1999년 10월 8일 최종수정본 받음)

**초록** 반도체 폐 Si슬러지를 이용하여 질화반응 및 post-sintering을 통해 제조된 질화규소세라믹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광학현미경, SEM 및 XRD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상당량의  $\text{SiO}_2$ 비정질상을 포함하는 폐 Si분말에서 많은 microcracks이 관찰되었다. 폐 슬러지를 사용한 Si 성형체의 질화율은 상용되고 있는 Si분말을 이용한 성형체의 값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질화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질화율은 증가하였으며 1470°C에서 질화율은 98%를 보였다. 반응소결체내에 존재하는  $\text{Si}_3\text{N}_4$ 의 결정은  $\alpha$ 와  $\beta$ 상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상당량의 산질화규소상이 검출되었다. 1950°C에서 후처리된 시료의 최대파괴인성 및 파괴강도 값은 각각  $5.6 \text{ MPa} \cdot \text{m}^{1/2}$ 과 497 MPa로 H. C. Starck사의 Si를 이용한 것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산질화규소 형성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ext{Si}_3\text{N}_4$  ceramics produced by nitridation and post-sintering using semiconductor-waste-Si sludge were investigated. Lots of microcracks were observed in the waste-Si powders which contained some amounts of amorphous  $\text{SiO}_2$ . The nitridation rate of waste-Si compacts showed lower value than that of commercial Si powder compacts. The nitridation rate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nitridation temperature and then the percent of nitridation at 1470°C showed 98%. The phases of  $\text{Si}_3\text{N}_4$  in the reaction-bonded bodies were mixed with  $\alpha$  and  $\beta$ -type, and small amounts of  $\text{Si}_2\text{N}_2\text{O}$  phase while those after post-sintering were  $\beta$ - $\text{Si}_3\text{N}_4$  and  $O'$ -Sialon. The sample post-sintered at 1950°C showed the fracture toughness of  $5.6 \text{ MPa} \cdot \text{m}^{1/2}$  and the fracture strength of 497 MPa which were lower than those of sintered body using commercial Si powder possibly due to the formation of  $O'$ -Sialon phase.

### 1. 서 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조화 및 환경친화 재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정된 자원의 재활용도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웨이퍼 공급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들은 Si단결정 성장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안정된 poly-Si결정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Si웨이퍼의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 Si슬러지의 양도 점점 증대되리라고 전망된다.<sup>1,2)</sup>

단결정 Si ingot으로부터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절삭공정이 수반되며, 이때 많은 양의 폐 Si슬러지가 발생된다. 이 폐 Si슬러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Si입자는 고순도의 미세한 분말로 추정되며 분말 표면은 절삭액이 혼합되어 유기물로 흡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의 Si 반도체 산업의 풍부한 부산물인 Si슬러지를 이용하

여 저가인 반응소결공정에 의해  $\text{Si}_3\text{N}_4$  소재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온 소재로 기대되는  $\text{Si}_3\text{N}_4$ 의 광범위한 용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또한 반도체 산업용 폐 Si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절약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폐기물인 폐 Si슬러지를 고부가가치의  $\text{Si}_3\text{N}_4$ 계 세라믹 소재로의 재활용을 검토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의 폐 Si를 이용하여 반응소결온도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이들 반응소결체의 치밀화를 위해 GPS에 의해 후처리된 소결체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므로써 고부가가치의  $\text{Si}_3\text{N}_4$ 세라믹소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반응소결용 Si은 LG 실트론(주)의 Si단결정 절삭슬러지를 건조시켜 60mesh로 sieving한 것

을 초기 Si원료로 하였다. 입도분석은 Malvern 사의 Autosizer IIc를 이용하였으며 정밀한 분석을 위해 에탄올 용액에서 초음파로 응집체를 분산시킨 후 측정하였다. 이들 분말의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SEM (JSM5410)을 이용하여 gold 증착후 관찰하였다. 또한 폐 Si분말과 상용되고 있는 H. C. Starck사 Si분말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에탄올 용액에 분산시켜 carbon막이 증착된 Cu grid로 떠서 시료를 준비하여 TEM으로 관찰하였다. 소결체의 치밀화를 위해  $\text{Y}_2\text{O}_3$  및  $\text{Al}_2\text{O}_3$ 를 각각 질량비 5:2의 비율로 첨가하여 Si:소결조제의 비를 93:7로 맞추었으며 성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장입량에 대해 5wt% PEG를 첨가하였다. 이 혼합 분말체를 에탄올 용액에서  $\text{Si}_3\text{N}_4$  Ball을 이용하여 planetary ball milling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시켰다. 혼합된 슬러리를 magnetic stirrer로 교반하면서 hot-plate 위에서 전조시킨 후 sieving하여 성형용 분체를 제조하였다. 성형체 제조를 위하여 30mm  $\phi$ 의 금형에 약 10g의 분체를 장입하여 10 MPa의 압력에서 lever press로 1차 성형후 CIP로 250 MPa로 가압하여 성형밀도를 향상시켰다. 성형체에 함유된 PEG 결합제를 탈지처리하기 위해 800°C에서 4시간, Ar분위기로 burn-out하였다. 탈지처리된 성형체의 반응소결은 1350°C, 1380°C, 1410°C, 1440°C, 1470°C의 온도에서 하였다.

한편 기존의 수입 Si분말과 폐 Si슬러지로부터 얻은 Si 분말의 질화거동을 비교하기 위해 외산 Si분말을 1350°C 및 1400°C의 동일한 조건에서 반응소결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반응소결체의 질화율은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미세 조직 및 반응상의 결정상 해석을 위해 OM 및 XR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폐 Si슬러지로부터 얻은 반응소결체의 치밀화를 위해 GPS(Gas Pressure Sintering)에 의해 1950°C의 1050psi  $\text{N}_2$  분위기에서 3.5시간 post-sintering을 한 후 미세조직 및 결정상 분석을 위해 OM, SEM 및 XRD를 이용하였다.

또한,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Vickers경도를 1Kgf의 하중으로 10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하였으며, 상온 3점 곡강도 실험은 Instron을 이용하여 각 조성당 6개의 시료를  $2 \times 3 \times 25\text{mm}^3$  크기로 제작하여 cross head speed 0.5mm/min의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파괴인성은 Indentation법을 이용하여 각 시료당 10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으며 30Kgf의 하중, 유지시간 15초의 조건에서 하였다.<sup>3)</sup>

### 3. 연구결과 및 고찰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폐 Si원료분말의 SEM image(a)와 입도분석 결과(b)이다. 분말의 입형은 불규칙한 형상으로 평균입도는 7 $\mu\text{m}$ 이었다. 이들의 분말은 현재 반응소결용 Si분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H. C. Starck사의 평균입도 10 $\mu\text{m}$ 에 비해 미세한 것이며<sup>4)</sup> 분말의 색상도 보다 적갈색을 보였다.

Fig. 2 a)와 b)는 폐 Si 분말과 H. C. Stack사의 Si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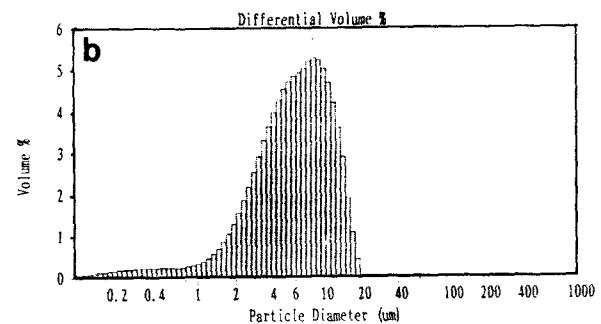


Fig. 1. SEM micrograph (a)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b) of waste Si powder.

말의 미세조직 및 결정상을 분석한 TEM images이다. 이 폐 Si입자는 약 3 $\mu\text{m}$ 의 크기로 입자내부에 다수의 microcracks과 검은 contrast의 미결정립이 관찰된다. 또한 전자선 회절 패턴에서 미세한 ring 패턴과 약한 diffused ring 패턴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약 50nm 크기의 미결정립과 비정질의  $\text{SiO}_2$ 막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속으로 회전되는 다이아몬드휠에 의해 심한 응력을 받으면서 Si단결정이 절삭될 때 소성변형과 microcracks이 도입될 수 있다. 이와같이 Si입자에 crack이 도입되면 입자내부는 부분적으로 Bragg반사 회절조건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Fig. 2 a)와 같이 국부적으로 contrast의 차이를 나타내게 한다. 또한 대부분의 폐 Si입자는 비정질막이 존재하는데 이는 연삭시 사용되는 연삭액의 주성분인 물과 반응하여 비정질  $\text{SiO}_2$ 막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폐 Si입자의 비정질화의 정도는 2 $\mu\text{m}$ 보다 작은 미립입수록 더욱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H. C. Starck사의 분말은 Fig. 2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내부조직이 깨끗하고 [110] 입사에 의한 전자선 회절도 sharp한 spots로 관찰되는데 이것으로부터 폐 Si분말에 비해 내부 결함 및 표면의 비정질상이 적은 분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3 a), b) 및 c)는 폐 Si에 대해 질화반응 온도에 따라 관찰한 광학현미경 사진으로 각각 1350°C, 1410°C 및 1470°C에서 반응소결한 것이다. 1350°C와 1410°C 시료의 경우 화살표머리로 표시한 바와 같이 흰 contrasts의 잔류 Si이 다수 관찰되며 온도가 높을수록 이들 잔류 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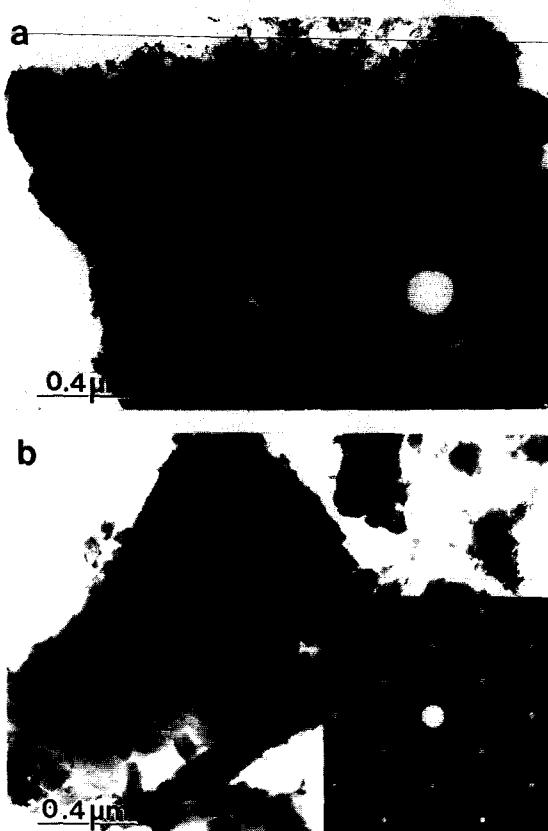


Fig. 2. TEM images and corresponding electron diffraction patterns of waste Si (a) and commercial Si particles (b).

이 관찰되지 않는 영역도 관찰된다. 한편 질화온도가 비교적 높은 1470°C의 경우 1350°C와 1410°C에서 관찰되었던 잔류 Si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것으로부터 1470°C 온도까지는 반응소결온도가 높을수록 질화가 촉진됨을 알 수 있다.

Fig. 4는 폐 Si성형체에 대해 반응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질화율을 나타낸 것으로 1350°C의 경우 52%의 낮은 질화율을 보이지만 1470°C의 반응소결체에서는 98%의 높은 질화율을 보였다. 한편 초기원료 Si분말에 따라 질화율을 비교하기 위해 H. C. Starck사의 Si을 이용하여 1350°C 및 1400°C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반응소결한 결과를 Fig. 4에서 open circle로 나타냈다. 이 경우 질화율은 1350°C 및 1400°C에서 각각 72%와 99%로 폐 Si원료를 사용한 것에 비해 높은 질화율을 보인다. 초기 Si의 입자가 작을수록 그리고 내부에 microcrack이 많이 도입될수록 질화는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폐 Si의 질화는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였다.<sup>4)</sup> 그러나 Fig. 4의 결과에서 볼 수 있었듯이 폐 Si을 이용한 성형체의 질화율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되지만 H. C. Starck사의 것에 비해 각 온도에서 기대 이하의 낮은 값을 보여 주었다. 한편 폐 Si과 H. C. Starck사의 산소함량은 각각 6.68wt%와 0.63wt%로 폐 Si분말의 경우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sup>5)</sup> 질화반응시 Si표면에 존재하는  $\text{SiO}_2$ 피막이 우선적으로 분해되면서 Si입자내부로 질화가 촉진되는데 폐 Si 분말과 같이 다량의  $\text{SiO}_2$ 피막이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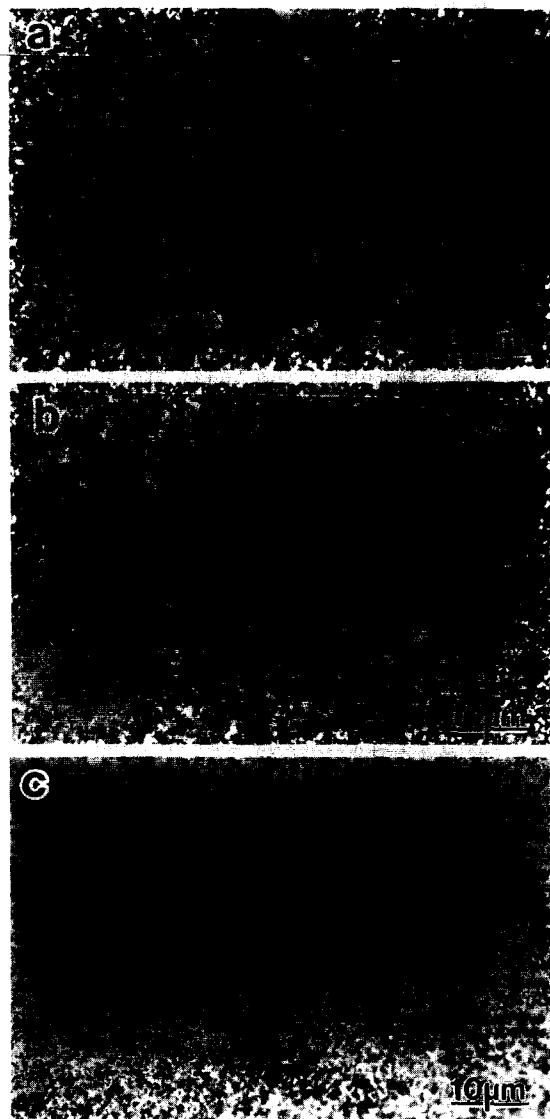


Fig. 3. Optical micrographs of reaction-bonded  $\text{Si}_3\text{N}_4$  bodies using waste Si powders, nitrided at 1350°C(a), 1410°C(b) and 1470°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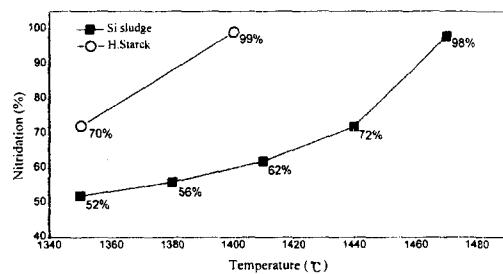


Fig. 4. Percent nitridation of reaction-bonded  $\text{Si}_3\text{N}_4$  bodies using waste Si and commercial Si powders depend on the nitridation temperature.

성되는 경우 질화가 지연되어 두 분말사이에 질화율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 5는 폐 Si의 질화반응온도에 따른 상의 발달을 조사하기 위한 XRD결과이다. 비교를 위해 원료 Si분체의 XRD회절결과도 삽입하였다. 1350°C 및 1470°C에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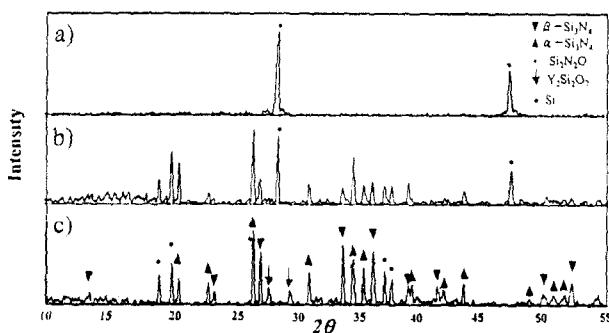


Fig. 5. X-ray diffraction profiles of waste Si powder(a) and reaction-bonded  $\text{Si}_3\text{N}_4$  bodies, nitrided at 1350°C(b) and 1470°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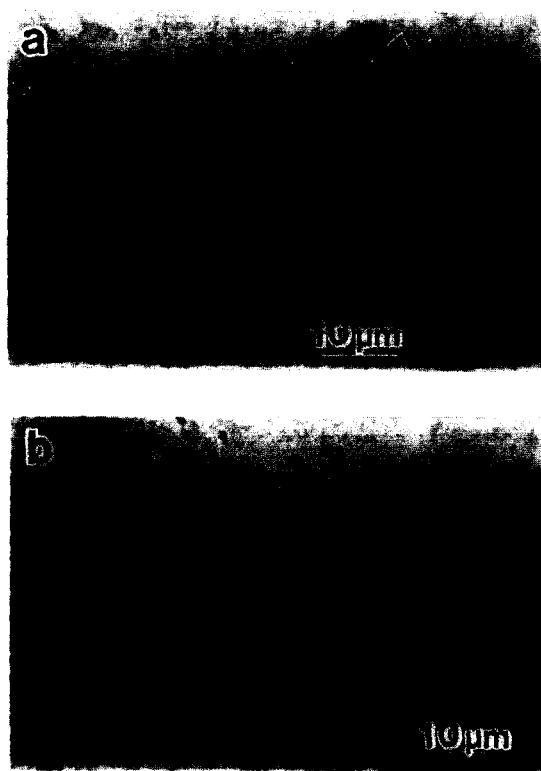


Fig. 6. Optical micrographs of GPSed  $\text{Si}_3\text{N}_4$  bodies at 1950°C, nitrided at 1350°C(a) and 1470°C(b).

소결한 두 시료는  $\text{Si}_3\text{N}_4$ 상의 생성 이외에  $\text{Si}_2\text{N}_2\text{O}$ 의 높은 peaks가 관찰되는 것으로부터  $\text{Si}_3\text{N}_4$ 와  $\text{Si}_2\text{N}_2\text{O}$ 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350°C의 경우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와 일치되게 높은 잔류 Si peaks가 관찰되며, 형성된  $\text{Si}_3\text{N}_4$ 로 대부분  $\alpha$ -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470°C에서 반응소결한 경우 1350°C의 시료에 비해 고온상인  $\beta$ - $\text{Si}_3\text{N}_4$ 가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이한 것은 폐 Si를 이용한 경우  $\text{Si}_2\text{N}_2\text{O}$ 와  $\text{Y}_2\text{Si}_2\text{O}_5$ 상이 출현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H. Starck사의 Si분말을 이용한 경우  $\text{Si}_2\text{N}_2\text{O}$ 상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sup>4,5)</sup> 이  $\text{Si}_2\text{N}_2\text{O}$ 의 형성은 초기의 폐 Si 원료분말에 존재했던 다량의  $\text{SiO}_2$ 와  $\text{Si}_3\text{N}_4$ ,  $\text{Y}_2\text{O}_3$  및  $\text{Al}_2\text{O}_3$ 에 의해 형성된  $\text{SiO}_2$  rich glass로<sup>6,7)</sup> 부터 석출된 것을 알 수 있다.  $\text{Si}_3\text{N}_4$ - $\text{SiO}_2$ - $\text{Y}_2\text{O}_3$ 상관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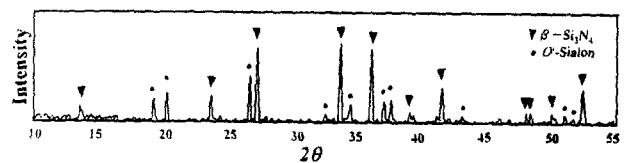


Fig. 7. X-ray diffraction profile of GPSed  $\text{Si}_3\text{N}_4$  body at 1950°C, nitrided at 1470°C.

서<sup>8)</sup> 나타나 있듯이 산소함량이 많을 경우  $\text{Si}_3\text{N}_4$ 는  $\text{Si}_2\text{N}_2\text{O}$ 와  $\text{Y}_2\text{Si}_2\text{O}_5$ 상과 공존하며, 본 실험에서 제2상으로  $\text{Si}_2\text{N}_2\text{O}$ 와  $\text{Y}_2\text{Si}_2\text{O}_5$ 상이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폐 Si으로 출발한 경우 출발조성이  $\text{Si}_3\text{N}_4$ - $\text{Si}_2\text{N}_2\text{O}$ - $\text{Y}_2\text{Si}_2\text{O}_5$ 의 compatible triangle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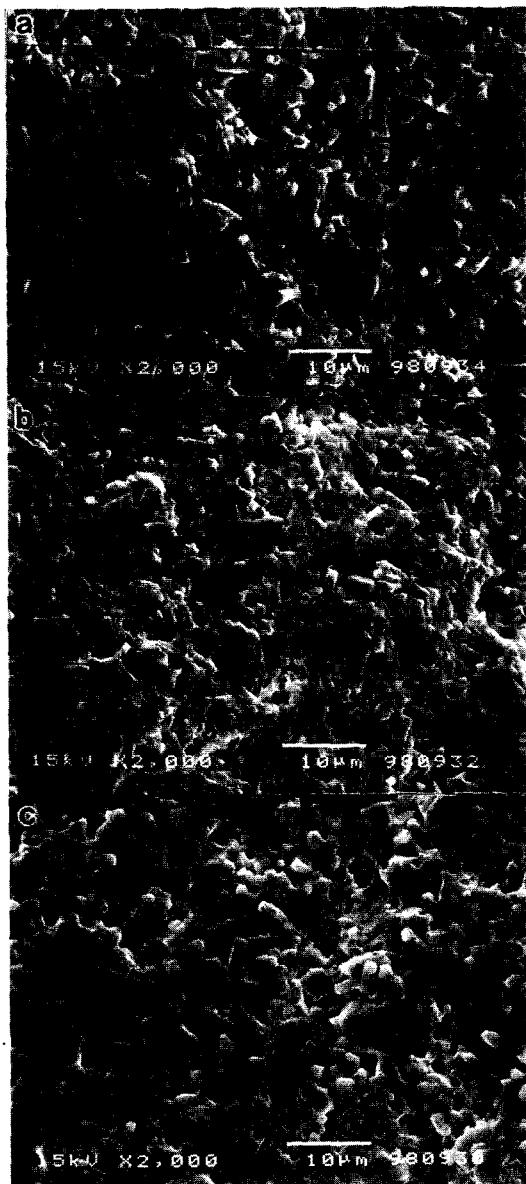
Fig. 6은 반응소결체의 치밀화를 위해 1950°C에서 3.5시간 GPS에 의해 후처리한 시료의 광학현미경조직이다. a)와 b)는 각각 1350°C와 1470°C에서 반응소결한 시료를 GPS한 것으로 GPS 전 잔류 Si이 많았던 1350°C의 시편의 경우 후처리 후 잔류 Si량은 많이 줄었으나 화살표 머리로 표시한 바와 같이 아직도 미량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GPS과정에서 반응소결체에 존재하던 상당량의 잔류 Si의 대부분은 질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결체내에 존재하는 잔류 Si은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 특히 파괴인성 및 고온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소결 단계를 제어하여 질화율을 높여 주어야만 된다.

Fig. 7은 1470°C에서 반응소결한 시료를 GPS처리한 것의 XRD결과이다. Fig. 5의 XRD결과와 비교해 볼 때  $\alpha$ - $\text{Si}_3\text{N}_4$ 가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반응소결체 내에 존재하던  $\alpha$ - $\text{Si}_3\text{N}_4$ 가 고온에서 장시간 GPS처리에 의해  $\beta$ - $\text{Si}_3\text{N}_4$ 로 완전히 상변태 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그러나 반응소결체에서 존재했던  $\text{Si}_2\text{N}_2\text{O}$ 상은 GPS후에 O-Sialon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text{Si}_2\text{N}_2\text{O}$ 상과 O-Sialon 상은 XRD pattern이 거의 유사하여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우나, 온도가 증가할수록 액상내의 Al성분이  $\text{Si}_2\text{N}_2\text{O}$ 상내에 고용되어 O-Sialon ( $\text{Si}_{2-x}\text{Al}_x\text{O}_{1+x}\text{N}_{2-x}$ )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한편 1350°C 및 1410°C에서 반응소결후 GPS한 시료의 XRD결과도 Fig. 7의 1470°C XRD결과와 유사한 회절패턴을 보였다.

Table 1은 초기 반응소결 온도가 GPS한 소결체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도, 파괴인성 및 3점곡강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3점곡강도의 경우 반응소결온도의 증가와 더불어 약간씩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부분 450 MPa 이상의 값을 보였다. 평균 경도 및 파괴인성치는 1410°C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각각 1538 Hv와 5.6  $\text{MPa} \cdot \text{m}^{1/2}$ 을 보여 GPS조건의 최적화와 폐 Si원료의 특성개선을 통한 조직제어에 의해 보다 높은 특성의  $\text{Si}_3\text{N}_4$ 소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H. Starck사의 분말을 이용하여 1400°C에서 제조된 GPS소결체의 경도, 파괴강도 및 파괴인성은 각각 1502 Hv, 731 MPa 및 7.8  $\text{MPa} \cdot \text{m}^{1/2}$ 로 폐 Si를 이용한 것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GPSed  $\text{Si}_3\text{N}_4$  bodies at 1950°C, depend on the nitridation temperature.

Properties Temperature	Fracture toughness( $\text{MPa}/\text{m}^{1/2}$ )	Fracture strength (MPa)	Hardness( $\text{Hv}$ )
1350°C (using waste Si)	4.77 ± 0.15	497 ± 20	1381 ± 20
1410°C (using waste Si)	5.6 ± 0.15	456 ± 25	1538 ± 30
1470°C (using waste Si)	4.21 ± 0.12	450 ± 15	1497 ± 15
1400°C (using H.C.Starck Si powder)	7.8 ± 0.14	731 ± 20	1502 ± 17

Fig. 8. SEM fracture surfaces of GPSed  $\text{Si}_3\text{N}_4$  bodies at 1950°C, nitrided at 1350°C(a), 1410°C(b) and 1470°C(c).

$\alpha/\beta$ 상변태에 의해 rod-like형의 grain morphology로 잘 발달된 조직을 보였다.<sup>11)</sup>

Fig. 8은 1350°C, 1410°C, 1470°C에서 반응 소결한 후 GPS로 후처리한 시료를 3점 곡강도시험후 얻은 파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1350°C 및 1470°C에 비해 1410°C의 파단면이 보다 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으며 표

면기복이 심한 입계파괴양식을 보인다. 또한 1410°C 소결체에서는 rod-type의  $\text{Si}_3\text{N}_4$ 입자가 pull-out된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지만 1350°C 및 1470°C의 경우 화살표 머리로 표시한 바와 같이 보다 flat한 입내파괴 영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재료와 다르게 구조세라믹재료는 입내파괴보다는 전형적인 입계파괴일수록 파괴인성 값이 높다.<sup>12,13)</sup> crack의 전파시 입계파괴를 유도하므로써 전파에너지를 분산시키게 되며, 주요 toughening mechanisms 이 입계파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응소결온도가 GPS한 소결체의 파단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폐 Si원료를 이용하여 각 온도에서 제조한 반응소결체의 미세구조 및 결정상의 분포를 고찰해 보았다. Fig. 3, Fig. 4 및 Fig. 5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1350°C의 반응소결체는 많은 양의 잔류Si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시료를 GPS한 소결체에서도 소량이지만 잔류 Si의 양이 관찰되며 조직이 불균일하다. 반면 1470°C의 경우 잔류 Si는 극히 소량이며  $O$ -Sialon상과 더불어 형성된  $\text{Si}_3\text{N}_4$ 결정상에는 상당량의  $\beta$ 상이 존재하고 있다. 즉 반응소결체내에  $\alpha$ 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GPS소결시  $\alpha/\beta$ 상변태에 의해 발달되는 aspect ratio가 큰 rod-like  $\beta$ - $\text{Si}_3\text{N}_4$ 의 발달은 적게되며 비교적 균일한 equiaxed조직을 형성하여 단상의 소결체에서 흔히 관찰되는 파단면을 보인다.<sup>13)</sup> 일반적으로 반응소결체의  $\beta$ 상 형성은 반응소결온도가 증가할수록 용이하다. 1410°C의 경우 GPS한 후처리 소결체의 파괴인성이 1350°C, 1470°C의 GPS소결체의 값보다는 높으나, H. C. starck사의 분말을 이용한 GPS소결체의 값보다는 낮은 값을 보였다. 이것은 폐 Si를 이용한 GPS소결체의 경우 XRD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O$ -Sialon상이 다량 형성되어  $\alpha$ 상의 상변태시 형성되는 rod-like  $\beta$ 상의 발달을 저해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제2상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 입계의 단위면적당 입계성장에 대한 구속력은 제2상의 체적분률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sup>14)</sup> 폐 Si분말을 이용하여 제조된 반응소결체 내의  $O$ -Sialon상의 존재는  $\alpha/\beta$ 상변태시  $\beta$ 상의 입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화규소내 산소함량이 많을 경우  $\text{Si}_2\text{N}_2\text{O}$ 상의 산화저항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text{Si}_3\text{N}_4$ 와의 복합화를 추진한 연구가<sup>15,16)</sup> 수행되었으며, 특히 Mitomo<sup>17,18)</sup> 등은 elongated  $\text{Si}_2\text{N}_2\text{O}$ 상을  $\text{Si}_3\text{N}_4$ 기지내에 형성시켜 파괴인성을 증진시킨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hot-press로 완전치밀화 한 후 annealing을 통해  $\text{Si}_2\text{N}_2\text{O}$ 상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파괴인성은 증진되나, 승온시 형성된  $\text{Si}_2\text{N}_2\text{O}$ 와  $O$ -Sialon상은 치밀화 및 기계적 특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져 있다.<sup>19)</sup> 특히 승온시 형성된  $O$ -Sialon상은 점도에 따라 불규칙적인 형상으로 나

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된 바 Mitomo가 채용한 완전치밀화한 후 annealing을 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승온시  $O'$ -Sialon상이 형성된다면 산화저항성의 향상은 기대할 수 있으나, 기계적 특성은 열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폐 Si을 이용한  $\text{Si}_3\text{N}_4$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향상을 위해서는  $O'$ -Sialon상의 형성에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폐 Si원료의  $\text{SiO}_2$  함량을 가능한 한 줄이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carbothermal reduction 공정의 도입 또는 소결조제의 성분을 조절하므로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결 론

반도체 산업의 폐 Si 슬러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text{Si}_3\text{N}_4$  반응소결 및 GPS에 의한 후처리  $\text{Si}_3\text{N}_4$  소결체의 미세조직, 질화율 및 기계적 특성을 H. C. Starck사의 Si을 이용한 것과 비교 평가하였다. 폐 Si 원료분말을 이용하여 제조된 성형체는 H. C. Starck사의 Si분말을 사용한 것에 비해 동일 조건에서 질화율이 낮았지만 질화온도가 높을 수록 질화율은 향상되어 1410°C 및 1470°C에서 각각 62%와 98%의 질화율을 보였다. 폐 Si 원료분말내 다량의 산소에 의해 질화반응후  $\text{Si}_2\text{N}_2\text{O}$ 상과  $\text{YSi}_2\text{O}_7$ 상이 출현하였으며, 고온에서의 후처리동안  $\text{Si}_2\text{N}_2\text{O}$ 상과 액상내 Al이 반응하여  $O'$ -Sialon상이 겹출되었다. H. C. Starck사의 비교시편에 비해 기계적 특성이 다소 낮았으며 이는 형성된  $O'$ -Sialon상이 기계적 특성 열화에 기여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핵심연구비(과제번호 : 981-0801-005-2)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참 고 문 헌

1. 이병택, 이수영, “반도체 산업 폐 Si 슬러지의 재활용 기술현황” 기계와 재료, **10**, 6-15 (1998).
2. B. T. Lee, S. Y. Lee and S. J. Kim, “Fabrication of Reaction-Bonded  $\text{Si}_3\text{N}_4$  Using Waste Si Sludge,”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MATERIALS, 75-78 (1997).
3. A. G. Evans and E. A. Charles, “Fracture Toughness Determined by Indentation,” J. Am. Ceram. Soc., **58**, 371-372 (1976).
4. B. T. Lee and H. D. Kim, “Nitridation Mechanism of Si Compacts Studi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Mater. Trans. JIM, **37**, 1547-1553 (1996).
5. 1998년도 환경에너지 재료기술개발 연구보고서, 한국기계연구원, 510-547 (1999).
6. M. Swain, “Material Science and Technology,” Eds. R. W. Cahn, P. Hassen, and E. J. Ktmer, **11**, 155-157 (1994).
7. W. Braue, R. Pleger and W. Luxen, “Nucleation and growth of  $\text{Si}_2\text{N}_2\text{O}$  in  $\text{Si}_3\text{N}_4$  materials employing different sintering additives,” Key Eng. Mater., **89**, 483-488 (1994).
8. L. J. Gauckler, H. Hohnke and T. Y. Tien, “The system  $\text{Si}_3\text{N}_4-\text{SiO}_2-\text{Y}_2\text{O}_3$ ,” J. Am. Ceram. Soc., **63**, 35-37 (1980).
9. B. T. Lee, G. Pezzotti and K. Hiraga, “Microstructure and Fracture Behavior SiC-Platelet-Reinforced  $\text{Si}_3\text{N}_4$  Matrix Composites,” Mater. Sci. & Engi. **A177**, 151-160 (1994).
10. M. Ohashi, K. Hirao, M. E. Brito, N. Tanaka, M. Yasuoka and S. Kanzaki, “Solid solubility of aluminium in  $O'$ -sialon,” J. Am. Ceram. Soc., **76**, 2112-2114 (1993).
11. B. T. Lee and H. D. Kim, “In-situ synthesis of  $\text{Si}_3\text{N}_4-\text{TiN}$  Composites using Si and Ti powders,” J. Mater. Sci. in press (1999).
12. B. T. Lee and K. Hiraga, “Crack Propagation and Deformation Behavior of  $\text{Al}_2\text{O}_3$ -24vol% $\text{ZrO}_2$  Composite Studi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J. Mater. Res., **9**, 1199-1207 (1994).
13. B. T. Lee, A. Nishiyama and K. Hiraga, “Micro-Indentation Fracture Behavior of  $\text{Al}_2\text{O}_3$ -24vol% $\text{ZrO}_2$  ( $\text{Y}_2\text{O}_3$ ) Composites Studi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Mater. Trans. JIM, **34**, 682-688 (1993).
14. D. A. Porter and K. E. Easterling, “Phase Transformations in Metals and Alloys,” Crystal interfaces and microstructure, pp. 169-174, Van Nostrand Rein Hold Co., 1980.
15. Kazuya Yabuta, Hiroki Nishio and Keizo Uematsu, “Effect of phase composition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hot pressed SiAlON ceramics,” J. Am. Ceram. Soc., **74**[4], 884-86 (1991).
16. Kazuya Yabuta, Hiroki Nishio and Keizo Uematsu, “Effect of heating rate on transition liquid phase sintering of beta- $O'$  sialon ceramics,” J. Ceram. Soc. Jpn, Int. Ed., **103**, 1228-90 (1995).
17. Chongmin Wang, Hideyuki Emoto and Mamoru Mitomo, “Nucleation and growth of silicon oxynitride grains in a fine-grained silicon nitride Matrix,” J. Am. Ceram. Soc., **81**[5], 1125-1132 (1998).
18. Hideyuki Emoto, Mamoru Mitomo, Chongmin Wang, Hideki Hirosturu and Tohru Inaba, “Fabrication of silicon nitride-silicon oxynitride in-situ composites,” J. Euro. Ceram. Soc., **18**, 527-22 (1998).
19. G. Woetting, H. Heuer, and E. Gugel, “The influence of powders and processing methods on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of dense silicon nitride,” Mat. Res. Soc. Symp. Proc., Vol. **287**, 133-46 (1993).